



깊은 바다 속으로, 제주 해녀를

클로리아 장이 제주도 해녀의 삶을 엿본다.



만나다

안수자씨를 비롯한
제주 해녀들은
바다 속의 진미를
캐며 놀라운 묘기를
보여준다.

PHOTOGRAPHED BY JEAN CHUNG/WPN

“숨을 참고 뛰어들어” 73세의 강순이 할머니가 소리친다. 물결이 거칠고 바람이 வீ빙거리는 가운데 나는 팔을 짓고 맹렬하게 밭길질을 하며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잠수가 되지 않는다. 허리에 8kg이나 되는 벨트를 찾지만 추운 11월 오후에 입은 두터운 잠수복의 부력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수면 위에서 팔다리를 휘저으며 버둥대기만 한다.

내가 뭔가 말하려 하는 순간 짜디짠 바닷물이 입속 가득 들어온다. 물결 사이로 마치 바다표범처럼 능숙하게 움직이는 강순이 할머니가 나를 보고 깔깔대며 웃는다. 내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동안 할머니는 손쉽게 잠수해 들어갔다가 성개를 들고 떠오른다.

나는 해녀의 놀라운 생활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제주도로 왔다.



(왼쪽) 대대로 해녀 일을 해온 강순이 할머니는 고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정하다. (위) 날이 밝자 제주 해녀들이 고된 물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엄격한 훈련과 육체적 적응 과정을 거친 해녀들은 바다 속 20m까지 잠수할 수 있다. 섭씨 10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4분 정도 숨을 참으며 전복이나 성게 같은 바다 속 진미를 캐낸다.

해녀의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바다 오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려 한다. 그 결과 해녀의 숫자

가 지난 40년 동안 3만 명에서 540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해녀들 나이가 50세 이상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해녀의 존재는 제주도 역사의 희미한 과거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며 해녀에 관해 많은 저술을 한 한림화씨는 이렇게 말한다. “해녀의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이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해녀야말로 제주도를 특



별하게 해주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어렵고도 위험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기요.”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내게 47세의 해녀 채정자씨가 말한다. 검정색 고무 잠수복과 마스크를 쓴 그녀는 물에 띄워 놓는 둥그렁고 하얀 태왁과 그물망태가 붙어 있는 밧줄을 나에게 던진다. 그 밧줄의 다른 끝은 채씨의 연약한 허리에 연결

돼 있다. “잡아요. 내가 데리고 나갈 테니.”

물에서 수백 미터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채씨가 오리발을 신

은 발을 차면서 10m 아래 바다 속으로 잠수해 들어간다. 나는 수면에서 그녀가 바위 쪽으로 다가가 갈라진 틈을 살피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내려다본다.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그녀가 평소 공기 대신 물로 숨쉬는 것이 어딘가 하고 생각된다. 그녀는 자그마한 쇠

제주 해녀의 남편들은 주로 아내들이 잡은 해산물을 분류하는 일을 맡는다.

갈고리로 소리를 떼어낸다. 몇 분 후 마침내 채씨가 턱을 위로 쳐들고 재빨리 밧줄을 하며 수면으로 떠오른다. 나는 채씨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리라 예측한다. 그런데 채씨는 고음의 운율이 있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낸다. “수면에 떠올라 참고 있던 숨을 내쉬게 되면 이런 ‘숨비 소리’가 나오요. 모든 해녀들은 숨비 소리를 냅니다.” 채씨가 말한다.

숨비 소리는 대대로 이어진 해녀들의 전통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해녀 연구를 주도했던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마취학과장 위

런 제이폴은 숨비 소리가 오랜 전통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다.

“입을 오므리고 공기를 뿜어내면 잠수로 찌그러질 수 있는 폐 속의 폐포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제이폴의 말이다. 또한 폐 내부가 비워진다. 그래서 부력이 줄어들어 해녀들이 다음 잠수를 쉽게 하도록 해준다. “고래와 바다표범이 잠수할 때 숨을 내쉬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제이폴은 제주 해녀와 포유류 바다 동물과의 유사점을 더 많이 찾아냈다. 웨일 바다표범처럼 해녀들은 몸속의 비장을 산

소 저장고로 사용한다. 잠수할 때 비장은 수축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적혈구를 방출하고 이것이 순환해 해녀들이 물속에서 오래 머물게 해준다.

해녀들의 잠수 능력은 오랫동안 생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뉴욕주립대 홍석기 박사와 허만 란이 1970년대 이전의 해녀들에 관해 연구했을 때 그들은 해녀들이 겨울에 한국의 보통사람보다 두 배나 많이 산소를 소모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녀들은 갑상선을 이용해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함으로써 더 많은 열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비정상한 환경 적응이지요.” 제이폴은 말한다.

해녀들은 일곱 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작한다. 해안에서 해초를 따는 것부터 시작해 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서 값비싼 조개를 따는 법을 배운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도 배운다. 그들의 훈련은 많은 연습과 인내 그리고 시간을 요한다.

해녀들은 물질이 위험하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때는 소리를 하나 더 따고 싶죠. 그러나 남은 숨이 충분치 않으면 물 위로 떠올랐을 때 기절하게 돼요.” 강 할머니가 말한다.

그래서 해녀들은 잠수시간을 90초 이하로 제한한다. “오랫동안 깊은 곳에서 숨을 멈춘 채 잠수할 경우에는 바닷물이 폐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오면 폐가 확장됩니다. 그때 혈중산소가 폐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순간 몸이 온통 새파래지며 기절하게 되는 겁니다.” 제이폴의 말이다.

해녀들이 무리를 지어 잠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동료가 가까이 있으면 그럴 때 정신을 차리도록 찰싹 쳐줄 수 있지만 아무도 없으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수밖에 없어요.” 75세의 부안옥 할머니가 말한다.

그러나 더 이상 해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질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수확할 해산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근해의 오염으로 인해 바다 속의 자원이 황폐해지고 있다. “이젠 성게만 남았어요.” 채씨가 말한다.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해녀들은 채소를 기르거나 해변의 모텔과 식당에서 일한다.

어느 날 바다에서 돌아오니 해녀들이 나를 둘러싸고 질문을 던진다. “어땠어요? 춥지 않아요?” 그러더니 나를 식당 근처에 있는 그들의 방으로 초청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따뜻한 온돌 바닥에 담요를 같이 덮고 앉아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거

나 TV를 켜놓고 연속극을 시청한다.

강 할머니가 말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잠수복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 위에 나오자마자 곧장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시 해녀들은 집에서 만든 무명옷과 물안경, 오리발만 착용했을 뿐이었다. 해녀들은 풍요로운 바다와 힘들게 번돈을 술로 탕진해버리는 남편 이야기를 담은 해녀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가곤 했다.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강 할머니도 물질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해녀가 되었다. “살기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지요.”

다음날 아침, 안개 속으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때 나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는 해녀 한 분의 간이탈의장에서 100m쯤 떨어진 야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는 게 보였다. 제주도의 특징인 현무암 더미가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었다. “나같은 늙은 이들은 그 안이 답답해 싫다오. 거긴 젊은 이들이나 좋아하지요.”

그녀 옆에는 또 다른 오랜 전통의 자취가 남아 있다. 장작 더미와 나뭇조각이 그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 기온이 뚝 떨어지면 해녀들은 잠수하는 사이사이에 몸을 녹이기 위해 이 장작 더미에 불을 지필 것이다. 대대로 내려온 해녀들의 전통이다.

기록에 의하면 17세기까지는 남자, 여



대대로 이어진 전통과 고된 육체노동으로 인해 제주 해녀들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자 모두 제주도에서 잠수를 했다고 한다. 남자들은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땀고 여자들은 해안에서 해초를 채취했다. 그런데 임금이 남자들에게 일년 내내 전복을 따라라는 명령을 내리자 남자들이 일이 너무 위험하고 날씨가 추워 모두 섬에서 도망쳐 육지로 가버렸다. 이후 여

자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해녀들의 수입이 점점 늘자 여성의 경제력도 커졌다. 그들은 본토 여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이혼과 재혼의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해녀조합을 결성해 해안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했다. 해녀들의 조직력은 1932년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하러 바다에 나가지 않는 시간에는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긴다.

그러나 동시에 해녀들의 번영은 해녀 쇠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1960년대가 되자 해녀들은 재산을 충분히 늘렸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본토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물질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우리처럼 잠수를 하려 들다가는 그 아이들은 빠져 죽고 말 거예요. 우리 딸애는 해엄도 칠 줄 모른다니까요.” 49세의 해녀 고태옥씨가 말한다.

그날 늦은 시각에 나는 잠수를 마치고 나오는 해녀들을 만났다. 잠수복은 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그물망태에는 성게가 가득히 들어 있었다. 몇몇 해녀는 고무줄로 쏘는 작살인 “소살”로 물고기를 잡았다. 문어, 해삼도 들어 있었다. 수확물이 예전처럼 풍부하지는 않지만 해녀들은 훌륭한 잠수 능력과 물질 솜씨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

해녀 남편들이 해녀들이 캐온 성게를 분류하고 노란 성게알을 꺼내는 작업을 도우러 온다. 그들은 성게알의 무게를 쟀 후 섬과 본토 그리고 일본의 상인들에게 판다.

바닷가 속으로 돌아오는데 뻗뻗하던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절뚝거릴 정도가 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가시에 찢린 자국이 있다.

“성게한테 찢린 거예요.” 해녀들이 내 무릎을 보고 말해준다.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2주 이상 지나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과 함께 지낸 걸 기억할 추억거리를 갖게 됐네요.” 해녀 한 분이 말한다.

성게 가시에 찢린 통증이 없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나는 해녀들의 강인한 결단력, 자부심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들의 전통에 대한 슬픔 등을 회상하곤 한다. 그들은 딸들에게 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행복해했다.

해녀들과 마지막으로 잠수할 때 나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했다. 바다 밑바닥에 앉아 해녀들의 작업을 보기 위해서였다. 내 위로 해녀들이 힘들이지 않고 미끄러지듯 오르내린다. 마치 몸동작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시와 같다. 잠자기 수면으로부터 햇살이 뚫고 들어온다. 그 순간 해녀들이 보여주는 생존의 몸부림은 아찔할 정도로 아름답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 물질이 좋아요.” 채정자씨가 하는 말이다.

경제학자: 어제 자기가 예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내일 알게 되는 전문가.